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8. 9.(금)

구로역 구내 열차 작업자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8월 9일(금) 오전 2시 20분경 경부일반선 구로역 구내에서 작업차량 작업 중 코레일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,
 -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, 철도안전감독관, 철도경찰, 교통안전공단(조사관)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였으며, 코레일(사장 한문희)은 사고현장 등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사고 수습 중입니다.
- 전차선로 작업을 하던 작업차량의 일부가 인근 선로를 지나가던 다른 작업차량과 접촉하면서,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,
 - 현재(오전 7시경) 사망자는 2명, 부상자는 1명으로 확인되었고,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 중입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열차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 및 작업자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,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채훈 (044-201-4603)